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3호 [루계 제23420호] 주제100 (2011)년 4월 13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6호

###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오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면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밭들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기어이 이루하고야 말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우리 혁명무력은 오늘 당의 선군령도밑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꽂들어차고 훨승불패의 전투적위력을 지닌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여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다.

나는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난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앞으로도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

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릴것을 명령한다.

△ 상장	오일정	황병서						
△ 중장	송석원	장정남	채문석	허영호	리종무			
△ 소장	정명구	최광준	허상문	김성철	홍영환	권기호	전태호	차상석
김상철	리일환	리봉춘	심철수	한성일	리성복	박정룡	김덕철	김정복
안기철	리동춘	허인선	리수길	전총렬	김판홍	서국옥	박호철	박호철
박경환	전경선	리재영	허용길	홍영순	김정현	김수현	방용식	방용식
김기웅	홍기	송명권	주철호	김석호	김대성			

## 조선인민군 김정일 정 최고사령관

김정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주재 아랍공보쎈터, 중국공공외교 문화교류쎈터에서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주재 아랍공보쎈터와 중국공공외교문화교류쎈터에서 공동명의로 선물을 올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국주재 우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김일성 청년영 예상, 김일성 소년영 예상 수여식 진행

【평양 4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청년영 예상, 김일성소년영 예상이 모범적인 청년동맹원들과 일군들에게 김일성청년영 예상이 수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는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

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는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

로 준비하였으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147명의 청년동맹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 예상이 수여되었다.

수여식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 주제 100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총서 《불멸의 역사》

우리 나라 수령형상문화발전  
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김일성상계 판작물인 총서 『불  
멸의 역사』는 위대한 창작동들을  
이 어떤 형상집단으로 하여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  
력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재  
현한 역사문화학자치를 가지는  
혁명적작이다.

4. 15 문학창작단에서는  
주제 61 (1972)년부터  
주제 100 (2011)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총서 『불  
멸의 역사』 전 35권에 달하는  
장편소설들을 창작완성하여 내<sup>놓아놓았다.</sup>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사업은 총서  
『불멸의 역사』가 창작되면  
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  
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조국과 민족, 인류앞에 거대한  
공헌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역사와  
보적의리를 가지는 명작소설  
들을 창작하여 총서 『불  
멸의 역사』 창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아버지이수령님의 탄생 60돐

에 즈음하여 장편소설 『19

32년』이 총서 『불멸의 역사』의 첫 성작으로 완성되었으며 1980년대초에 전 15권으로

제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구성된 총서 『불멸의 역사』가 주제

100년사와 더불어 수령형상

문화으로 활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진실하고  
명확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20세기 수령형상문화의 훌륭한  
성작으로 되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총서 『불  
멸의 역사』의 창작은 더욱 본  
질현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  
으로 하여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당원의 전』은 『당원  
의 길』, 『열병광장』, 『푸른  
산악』, 『개선』, 『인간의 노래』,  
『전선의 아침』, 『청산별』, 『번영의 시대』,  
『대박산마루』를 비롯하여  
한 할일혁명투쟁시기온인  
상을 수여받았다.

1990년대 후반기와 1990년대초에 총서 『불  
멸의 역사』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 『50여 лет』, 『조선의 힘』을 비롯하여  
아버지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총서 『불  
멸의 역사』 장편소설을 계속  
제작하여 내놓기 위해 노력하여  
많은 장편소설들이 창작완성  
되었다.

지금 4·15 문학창작단의 일군들과 작가들은  
아버지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총서 『불  
멸의 역사』 장편소설을 제작  
하여 수령형상의 빛나는  
형도하시는 내용을 담은 장편  
소설들이 창작되었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김일성상계 판인, 로령영웅을

비롯한 관록있는 작가력량이  
총서 『불멸의 역사』 창작에서  
전제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총서 『불멸의 역사』가 주제

100년사와 더불어 수령형상

문화으로 활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진실하고  
명확하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20세기 수령형상문화의 훌륭한  
성작으로 되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총서 『불  
멸의 역사』의 창작은 더욱 본  
질현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  
으로 하여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당원의 전』은 『당원  
의 길』, 『열병광장』, 『푸른  
산악』, 『개선』, 『인간의 노래』,  
『전선의 아침』, 『청산별』, 『번영의 시대』,  
『대박산마루』를 비롯하여  
한 할일혁명투쟁시기온인  
상을 수여받았다.

1990년대 후반기와 1990년대초에 총서 『불  
멸의 역사』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 『50여 лет』, 『조선의 힘』을 비롯하여  
아버지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총서 『불  
멸의 역사』 장편소설을 계속  
제작하여 내놓기 위해 노력하여  
많은 장편소설들이 창작완성  
되었다.

지금 4·15 문학창작단의 일군들과 작가들은  
아버지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총서 『불  
멸의 역사』 장편소설을 제작  
하여 수령형상의 빛나는  
형도하시는 내용을 담은 장편  
소설들이 창작되었다.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김일성상계 판인, 로령영웅을

### 순결한 충정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량강도 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이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속에  
종업원들은 우리 조국의 통성번  
명과 일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쳐가는 소행  
들이 더욱 높이 밟혀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절절 우리 민족은 자기  
의 수령을 흡족히 빙울고  
받드는 힘으로 일군들과  
학생들은 청소년 학생들  
에게 그 어느 나라 인민  
들과 대비할수 없이 고상한  
인민입니다.』

혜산시당위원회, 혜산시인민  
위원회를 비롯한 시안의 기관,  
기업소, 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  
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명전적지 교양마당주변의 화단  
정리에 지성을 다 바치고 있다.

지난 간기 비가 오나 끈이 오나  
아버지이수령님의 불멸의 혁  
명적작을 길이 전하는 보천보  
전투승리기념탑 교양마당판  
리를 성실히 해온 김정숙사범대  
학, 혜산경대학의 대학생들과  
혜산경제전문학교, 혜산시  
안의 청교도, 청교도의 청소년  
학생들은 삼지연대기념비와 청봉  
숙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주변 교양마당판  
리를 시작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  
아버지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실 불타는 마음을 안고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는 도안의 당원들  
과 청소년 학생들은 혜산경  
제전투승리기념탑 교양마당  
판리를 시작하고 있다.

신파현명사적지판리를 지난  
수십년간 진행하는 과정을 통  
하여 학생들을 주체혁명학원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웠으며 10  
여명의 김일성소년영예상수상자  
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를 흡족히 빙울고 세대가 바뀌어  
아버지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실 불타는 마음을 안고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에 온갖  
지성을 다 바치는 도안의 당원들  
과 청소년 학생들은 혜산경  
제전투승리기념탑 교양마당  
판리를 시작하고 있다.

공장에 서는  
이룩하고 있다. 이들은 생활의 앞  
공장을 맑아나쳤다는 자각을  
하고 보이려는 정장을 입고  
영하여 생활된 증기로 혁신을  
자각하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생활현장에 내려가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종  
업원들에게 되새겨주는 한편  
걸친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  
가면서 생활조직과 지원을 짜고  
고쳤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펼쳐  
여러 견의 기술혁신을 암을  
생산에 도입하면서 제품의 질  
을 훨씬 높이는 자랑찬 성과를

### 모든 힘을 인민생활대고조에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제임을 빙여나서 멀려나지  
못해낼 일이 없다는 배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

경성도자기공장에 서는  
이미 석고분체공정을 밀폐식으  
로 개조하여 분체률을 2·5배  
로 높였다. 그리고 경질자기생  
산공정을 보다 완비하고 소성로  
를 통해 자동온도조종장치를 설치  
하였으며 유압을 새로 개발하여  
생산에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도자기제품의 표면정결도와 백

색도를 훨씬 높이었다.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에도  
이루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  
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

치고 있다.

공장에서는 소성도자기  
생산공정을 세로로 편리하고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  
한 성형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세로 설치함으로써 밤사발과  
국사발 등 인민들의 기호에 맞  
는 도자기 제 품생산 능력을  
1·5배로 높이었다.

기술혁신의 불길높이 생산적  
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은  
성형장과 정밀작업장의  
설비들을 철저히 풀어나갈  
공장의 모든 단위들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기자 리성호



절세의 위인을 천만년 받들어모실 우리 인민의 신념의 글발 수양산과 더불어 영원히 빛난다. 본사기자 찍음



# 태양절을 자랑찬 봄철영농전투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

## 앞선 영농방법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 때

박천군 맹중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자랑찬  
로역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들려고 있는 박천군 맹중협동농장  
에 가면 불러 한 일기 조건에  
서도 실한 모를 키울 수 있다는  
배심으로 벼모씨뿌리기와 대  
그치고 있는 농장원들의 신심에  
넘친 모습을 볼수 있다. 그 비  
결이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은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  
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  
으로 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자기 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히 틀어쥐고나야 합니다.»

지난 3월 씨뿌리기 일정계획  
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 관리위원회  
장은 한가지 문제를 놓고 생각  
이 깊어졌다. 땅이 제 높지 않은  
온데다가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조건에서 이미 세운 일정계획에  
로 씨뿌리기를 한다면 행해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기온  
이 오를 때까지 늦잠을 수도 없  
었다. 서두르면 모를 쉽게 걸  
리될수록 높고 늦추면 그만 모  
내기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  
은 불보듯 뻔한 티였다.

모를 틀른 기자는 못 기  
르는가에 따라 한해농사의 성과  
가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모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벼모기르기에서 나서는 기술혁신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에서는 모를 틀  
히 키워내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온도관리를 잘해야 한  
다. 모판관리기의 기온이  
낮아 밭마을 쇠우고 벼모를  
기르므로 씨앗을 뿐 후 쑥  
이 돌아올 때까지 모판인 온도  
를 험수로 높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쑥트기에 사용하는  
소화소의 활성이 온도가  
낮을 때 떨어지는 것과 관련되  
기 때문이다.

4월 초경에 씨를 뿐리는  
행상모에서는 비닐박막을 풀  
종의 세에 따라 평상식 또  
는 장판식으로 씨워 보온효과  
를 높여주는 한편 밤에는 나  
래덮기를 하여 모판온도를 높  
여주어야 한다.

싹이 돌아나온 후부터는  
바탕초이기와 토를 단  
련시켜야 한다. 바탕초이기  
를 할 때에는 기상조건을 보  
고 날씨가 개인 날에 진행하  
여 모생육에 좋은 조건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싹이 돌아  
나와 벼씨앗영양으로 자라는  
어린 모시기에는 모판인 온  
도를 낮에는 25~30℃, 밤

이런 때 일군의 정확한 타산  
과 읊은 결심체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문제를 본 그는 선진영  
농방법들을 다시 한번 깊이 되  
새겨보면서 그 해결방법을 모  
색하였다. 그 과정에 불리한 모  
습을 볼수 있다. 그 비  
결이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은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  
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  
으로 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자기 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히 틀어쥐고나야 합니다.»

지난 3월 씨뿌리기 일정계획  
을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경우에 실현 가능성에 확고  
하게 확률을 내고 대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험수로 높여주어야 한다.  
그날 저녁 작업반초급임군들  
까지 참가한 속에 열린 협의회  
에서 관리위원장은 속성모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모를 잘 키울  
수 있는 단위들에서는 모

에는 10~12℃ 되게 보장  
해주어야 한다.

물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속  
성모와 영양행상모인 경우 모  
판이 마르지 않도록 물기를 보  
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속성모를 키우는 모판에는  
비닐박막을 장판식으로 씨워  
토양물기로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 씨나리를 때 영양행상  
모에서는 모판에 깊은 흙이 들  
뜨는 현상을 나타나므로 이때  
에는 박막을 벗기고 물을 얕게  
 يجعلة. 때에 들판 흙이 내려앉게  
해야 한다. 씨뿌리 다음 쑥이  
돌아나울 때까지는 모판물기  
를 험수로 보장하며 쑥이 돌아  
나온 어린 모시기에는 6~7~10%로  
보관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모판이 마를 때에는 고  
량에 물을 냅다 키우는 방법으로  
물기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모종류별 영양판리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행  
상모와 영양행상모에서는 질  
소비료를 멀리로, 속성모  
에서는 쑥이 돌아나온 후 모  
습을 8~10%로 보장하고 쑥이  
돌아나온 어린 모시기에는  
6~7~10%로 보관해 주어야  
한다. 모판이 마를 때에는 고  
량에 물을 냅다 키우는 방법으로  
물기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당  
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이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 자  
각을 가지고 식량증산을 위  
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  
가야 합니다.»

정주시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은 정부의 협동법들이 씨뿌  
리기 전후로 쟁차기로 빠져들고  
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  
자들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  
명선을 키우는 일에 대한 씨뿌  
리기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그 결과는 일군들은  
속성모를 키우기로 했지만  
농장원들은 험수로 높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쑥트기에 사용하는  
소화소의 활성이 온도가  
낮을 때 떨어지는 것과 관련되  
기 때문이다.

4월 초경에 씨를 뿐리는  
행상모에서는 비닐박막을 풀  
종의 세에 따라 평상식 또  
는 장판식으로 씨워 보온효과  
를 높여주는 한편 밤에는 나  
래덮기를 하여 모판온도를 높  
여주어야 한다. 그동안 쑥트기  
를 하여 모판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그동안 쑥트기에는 씨앗을  
埋め込む 틈 없이 이모시  
기로 주는 것이 좋다. 비료를  
풀 때에는 맑은 날에 박막  
을 벗기고 비료주기를 해야  
한다. 또한 모판에 씨앗을 뿐  
여 험수로 높여주어야 한다.  
농업과학원 작물재배연구소  
강창민

내기의 가장 좋은 적기에 발령  
상모를 내고 속성모는 후반기  
에 넓 수 있게 씨뿌리기 일정계획  
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작업  
반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이곳 초급임군들은 같은 날  
자에 씨를 뿐려도 속성모는 발  
령상모보다 생육기일이 짧아  
되어 험수로 나갈수 있다는 점을  
증시하였다. 그래서 속성  
모씨뿌리기를 많이 하면서 행  
상모씨뿌리기로 적당하게 배합  
하였다. 이렇게 하니 4월에  
들어서서 씨뿌리기를 시작했지  
만 모를 잘 키워 모내기 성과를  
얻어나갈 수 있었다.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저녁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관리 위원장은 즉시 자기의  
결심을 농장일군들에게 털고자  
그들과 함께 제4작업반에 대  
여갔다. 한 것은 지난해 이  
작업반에서 속성모와 밭령상모를  
모두 해 놓았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이곳 초급임군들은 같은 날  
자에 씨를 뿐려도 속성모는 발  
령상모보다 생육기일이 짧아  
되어 험수로 나갈수 있다는 점을  
증시하였다. 그래서 속성  
모씨뿌리기를 많이 하면서 행  
상모씨뿌리기로 적당하게 배합  
하였다. 이렇게 하니 4월에  
들어서서 씨뿌리기를 시작했지  
만 모를 잘 키워 모내기 성과를  
얻어나갈 수 있었다.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저녁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관리 위원장은 즉시 자기의  
결심을 농장일군들에게 털고자  
그들과 함께 제4작업반에 대  
여갔다. 한 것은 지난해 이  
작업반에서 속성모와 밭령상모를  
모두 해 놓았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이곳 초급임군들은 같은 날  
자에 씨를 뿐려도 속성모는 발  
령상모보다 생육기일이 짧아  
되어 험수로 나갈수 있다는 점을  
증시하였다. 그래서 속성  
모씨뿌리기를 많이 하면서 행  
상모씨뿌리기로 적당하게 배합  
하였다. 이렇게 하니 4월에  
들어서서 씨뿌리기를 시작했지  
만 모를 잘 키워 모내기 성과를  
얻어나갈 수 있었다.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저녁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관리 위원장은 즉시 자기의  
결심을 농장일군들에게 털고자  
그들과 함께 제4작업반에 대  
여갔다. 한 것은 지난해 이  
작업반에서 속성모와 밭령상모를  
모두 해 놓았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이곳 초급임군들은 같은 날  
자에 씨를 뿐려도 속성모는 발  
령상모보다 생육기일이 짧아  
되어 험수로 나갈수 있다는 점을  
증시하였다. 그래서 속성  
모씨뿌리기를 많이 하면서 행  
상모씨뿌리기로 적당하게 배합  
하였다. 이렇게 하니 4월에  
들어서서 씨뿌리기를 시작했지  
만 모를 잘 키워 모내기 성과를  
얻어나갈 수 있었다.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저녁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관리 위원장은 즉시 자기의  
결심을 농장일군들에게 털고자  
그들과 함께 제4작업반에 대  
여갔다. 한 것은 지난해 이  
작업반에서 속성모와 밭령상모를  
모두 해 놓았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이곳 초급임군들은 같은 날  
자에 씨를 뿐려도 속성모는 발  
령상모보다 생육기일이 짧아  
되어 험수로 나갈수 있다는 점을  
증시하였다. 그래서 속성  
모씨뿌리기를 많이 하면서 행  
상모씨뿌리기로 적당하게 배합  
하였다. 이렇게 하니 4월에  
들어서서 씨뿌리기를 시작했지  
만 모를 잘 키워 모내기 성과를  
얻어나갈 수 있었다.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저녁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관리 위원장은 즉시 자기의  
결심을 농장일군들에게 털고자  
그들과 함께 제4작업반에 대  
여갔다. 한 것은 지난해 이  
작업반에서 속성모와 밭령상모를  
모두 해 놓았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이곳 초급임군들은 같은 날  
자에 씨를 뿐려도 속성모는 발  
령상모보다 생육기일이 짧아  
되어 험수로 나갈수 있다는 점을  
증시하였다. 그래서 속성  
모씨뿌리기를 많이 하면서 행  
상모씨뿌리기로 적당하게 배합  
하였다. 이렇게 하니 4월에  
들어서서 씨뿌리기를 시작했지  
만 모를 잘 키워 모내기 성과를  
얻어나갈 수 있었다.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저녁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관리 위원장은 즉시 자기의  
결심을 농장일군들에게 털고자  
그들과 함께 제4작업반에 대  
여갔다. 한 것은 지난해 이  
작업반에서 속성모와 밭령상모를  
모두 해 놓았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이곳 초급임군들은 같은 날  
자에 씨를 뿐려도 속성모는 발  
령상모보다 생육기일이 짧아  
되어 험수로 나갈수 있다는 점을  
증시하였다. 그래서 속성  
모씨뿌리기를 많이 하면서 행  
상모씨뿌리기로 적당하게 배합  
하였다. 이렇게 하니 4월에  
들어서서 씨뿌리기를 시작했지  
만 모를 잘 키워 모내기 성과를  
얻어나갈 수 있었다.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저녁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관리 위원장은 즉시 자기의  
결심을 농장일군들에게 털고자  
그들과 함께 제4작업반에 대  
여갔다. 한 것은 지난해 이  
작업반에서 속성모와 밭령상모를  
모두 해 놓았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이곳 초급임군들은 같은 날  
자에 씨를 뿐려도 속성모는 발  
령상모보다 생육기일이 짧아  
되어 험수로 나갈수 있다는 점을  
증시하였다. 그래서 속성  
모씨뿌리기를 많이 하면서 행  
상모씨뿌리기로 적당하게 배합  
하였다. 이렇게 하니 4월에  
들어서서 씨뿌리기를 시작했지  
만 모를 잘 키워 모내기 성과를  
얻어나갈 수 있었다.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저녁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관리 위원장은 즉시 자기의  
결심을 농장일군들에게 털고자  
그들과 함께 제4작업반에 대  
여갔다. 한 것은 지난해 이  
작업반에서 속성모와 밭령상모를  
모두 해 놓았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이곳 초급임군들은 같은 날  
자에 씨를 뿐려도 속성모는 발  
령상모보다 생육기일이 짧아  
되어 험수로 나갈수 있다는 점을  
증시하였다. 그래서 속성  
모씨뿌리기를 많이 하면서 행  
상모씨뿌리기로 적당하게 배합  
하였다. 이렇게 하니 4월에  
들어서서 씨뿌리기를 시작했지  
만 모를 잘 키워 모내기 성과를  
얻어나갈 수 있었다.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일군들은 이 경험  
을 놓고 이런 결론을 내리었다.  
모내기 직후에 모를 내야 전반  
적인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다.  
그러자면 모를 살피게 키울 수  
있도록 생육기일이 짧은 속성  
모를 키우기로 하면서 농장상  
모를 적당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저녁 일군들은 이 경험  
을



## 천세만세 길이 모실 민족의 영원한 태양

오늘 남녘인민들속에서는 민족생의 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길이 모시려는 자신들의 심정을 담은 열렬한 홍보의 목소리들이 격조높이 울려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을 절세의 국자, 항일의 전설적영웅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데로부터 수십성상 항일대전을 벌리시며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드높게 되새기고 있다.

남조선의 한 재야인사는 동료들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서 백번 싸우면 백번 이기는 전법들로 일제침략군을 무찌르셨다』.

그분께서 주체의 전략과 신묘한 전법을 자유자재로 쓰신 여기에 보천보전의 승리, 항일혁명투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 류례 없이 간고한 항일의 20성상을 위로로 빛내 이 신 주석님이 시야를 끌어온 것이다. 그 어느 시대, 민족의 국자이시고 항일의 전설적영웅이다.』고 격찬하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보시지 못했던 편 우리 조국을 영원히 찾을 걸 없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서울대학교

한 교수는 『김일성주석님과 8. 15 해방』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당국의 수난에 떠눈물짓던

암담한 시기 그 누구보다도 나

라와 민족을 구원할 애국정신

의 일념을 암시하고 준엄한 항

일혁명의 길에 용악 나서시였

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항

일대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신

그분께서는 강도 일제를 폐

민족의 평수, 위대한 혁명가

이시였다』고 격찬하였으며

8월 15일은 근 반세기에

이르는 일제의 군사적통치로부

터 나라와 거래의 윤명이 구원

된 특기 할 날이다.』고 하면서

『조국을 해방시키시여 우리 민

족의 소원을 풀어주신 그분을

우리 그리는 마음들은 오늘

도 레일도 영원할것이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남녘

인민들의 이러한 칭송의 목소

리는 남녘땅 그 어디서나 울려

나오고있다.

서울의 한 주민은 『세계사

를 둘러보아도 김일성주석님과

같으므로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력사에서도 찾을

수록 어렵다.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민족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는 열화같은 경모

의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나

오고있다.

한 분들은 『김일성주석님과

같은 시대에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기 백두산지구에 꾸린 비

밀근지들을 거점으로 하여

전반적 혁신혁명을 지도』. 『창

일전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에서 가장 핵심적인 투쟁.』

남조선의 『한겨레』를 비롯한 신문들은 『김일성주석님과

민족의 향애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령도로 찬연히

빛날 내 조국과 더불어 영원할

것이다.』라고 확신에 넘쳐

나오고 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강령에서

조선의 노력을 무시하고 북남

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

키는 용납 못할 행위이다.

우리는 민족의 단합과 협력

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

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의

있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김정일장군께서는 4월 15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 불멸의 꽃에 비친 위인 흠토의 뜨거운 마음

오늘부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인류 공동의 뜻깊은 명절인 테양절을 맞으며 제 13 차 김일성 흥화 축전이 성 대회 진행된다.

해마다 그러하듯이 김일성화 김정일 회전 시판에서 진행되는 이번 김일성 흥화 축전에 국민들은 물론 종편을 비롯한 해외 동포 단체들과 외국의 벗들도 자기들이 지성을 다해 기운 테양의 꽃들을 대놓고 있다.

우리 군대와 민족, 외국의 벗들은 이번 축전 장에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고자 위해 한 학생을 주체혁명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바치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한 담없는 흠모의 마음으로, 위인 칭송의 꽃바다, 축원의 황홀한 꽃바다를 펼쳐놓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김일성화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김일성화는 주체의 해발로 세계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밖에서 주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대양의 꽃이며 자주시대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난 위인 칭송의 꽃입니다.』

해마다 성대히 진행되는 김일성 흥화 축전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4월의 흥행렬을 뜻깊게 장식하는 위인 흠토의 꽃축전이다.

며나면 이국땅에서 진귀한 꽃으로 피어나 김일성화로 명명된 때로부터 어언 40여년, 이 역사의 갈파마다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들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였던가.

지구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꽃들이 있지만 김일성 흥화 꽃은 뜻을 담고 있는 꽃은 없다. 데메아트리스 너기자인 슈라인 베르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도이췰란드의 함부르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메아트리스 사는 국내외의 모든 일간신문사, 방송국들과 세계 80여개 나라의 수많은 통신사, 방송국, 텔레비죤방송국 및 공보단체들에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는 언론기관이다.

베르다가 워스위스에 위치 차로 간 것은 몇 해 전이었다. 물론 사상용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본 그였고 스위스 출장 또한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때 베르다가 받은 감동은 이전과는 달랐다.

워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시계가 유명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 나라에서 만드는 시계는 스위스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위스 시계에 그 나라 사람들의 땀과 냄새가 들어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워스위스에서 원형으로 된 회귀한 천연 꽃시계가 제작되었다. 20여 m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커다란 꽃시계는 각이한 색깔의 아름다운 화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비깥에는 꽃을 세밀로 그려낸 바탕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과 함께 꽃을 품은 꽃시계가 제작되었다. 20여 m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커다란 꽃시계는 각이한 색깔의 아름다운 화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은 테양절을 맞이할 때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헝양절 흥행렬 시기 함께 쌓은 전우들의 후대들에게 돌려주신 한없는 사랑과 응진에 대하여 감회 깊이 회고하였다.

그들은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해 양신으로 수령님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고 김일성 주석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 이별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 중의 위인 이시라고 결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 피어난 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테양절을 맞이할 때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헝양절 흥행렬 시기 함께 쌓은 전우들의 후대들에게 돌려주신 한없는 사랑과 응진에 대하여 감회 깊이 회고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 대국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선열들이 뛰어난 중조 친선을 키워준 역할에 영원히 경제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큰 절과 60개의 작은 절이 고르롭게 배열되어 있었다.

붉은색 바탕에는 1부터 12 까지의 아라비아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고 중심부는 붉은색, 푸른색, 흰색이 배합된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꽂았을 당시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한 것은 이 꽃시계의 맨 위부분에 김일성 흥화가 피어 있는 것이다. 정말 희한하기 그지 않았다. 그 꽃경을 직접 목격한 베르다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스위스의 천연 꽃시계의 맨 위부분에 놓여 있는 태양의 꽃 김일성 흥화와 불멸의 꽃 김일성 흥화를 세우는 일은 김일성 흥화와 함께 하는 행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보고르식 물원은 역사가 오랜 것으로 유명하지만 불멸의 꽃 김일성 흥화를 세상에 내놓은 것으로 하여 더욱 그 이름이 나오는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김일성 흥화 회전 시회를 열게 된 일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전보적인 인민의 자주업무를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었으며 그길에서 혁신의 마음의 분출이었다.

베르다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인간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유명 무명의 꽃들 중에서 김일성 흥화를 세우는 김일성 흥화 회전 시회장에 내놓은 것으로 하여 더욱 그 이름이 나오는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김일성 흥화 회전 시회장을 열게 된 일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었으며 그길에서 혁신의 마음의 분출이었다.』

정그은 세계 자주화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공해주는 언론기관이다.

베르다가 워스위스에 위치 차로 간 것은 몇 해 전이었다. 물론 사상용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본 그였고 스위스 출장 또한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때 베르다가 받은 감동은 이전과는 달랐다.

워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시계가 유명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 나라에서 만드는 시계는 스위스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위스 시계에 그 나라 사람들의 땀과 냄새가 들어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워스위스에서 원형으로 된 회귀한 천연 꽃시계가 제작되었다. 20여 m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커다란 꽃시계는 각이한 색깔의 아름다운 화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비깥에는 꽃을 세밀로 그려낸 바탕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과 함께 꽃을 품은 꽃시계가 제작되었다. 20여 m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커다란 꽃시계는 각이한 색깔의 아름다운 화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은 테양절을 맞이할 때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헝양절 흥행렬 시기 함께 쌓은 전우들의 후대들에게 돌려주신 한없는 사랑과 응진에 대하여 감회 깊이 회고하였다.

그들은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해 양신으로 수령님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고 김일성 주석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 이별뿐 아니라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 중의 위인 이시라고 결정에 넘쳐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큰 절과 60개의 작은 절이 고르롭게 배열되어 있었다.

주제 96 (2007) 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식 물원에서는 김일성 흥화 회전 시회 및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인도네시아 방문 사적 표석비 세우기 행사를 진행되었다. 행사는 인도네시아 학술원 부원장, 문화 및 관광성 총국장, 보고르식 물원 원장, 고드린 애우스멘 회사 사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보고르식 물원은 역사가 오랜 것으로 유명하지만 불멸의 꽃 김일성 흥화를 세상에 내놓은 것으로 하여 더욱 그 이름이 나오는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김일성 흥화 회전 시회장을 열게 된 일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전보적인 인민의 자주업무를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었으며 그길에서 혁신의 마음의 분출이었다.

정그은 세계 자주화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공해주는 언론기관이다.

베르다가 워스위스에 위치 차로 간 것은 몇 해 전이었다. 물론 사상용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본 그였고 스위스 출장 또한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때 베르다가 받은 감동은 이전과는 달랐다.

워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시계가 유명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 나라에서 만드는 시계는 스위스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위스 시계에 그 나라 사람들의 땀과 냄새가 들어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워스위스에서 원형으로 된 회귀한 천연 꽃시계가 제작되었다. 20여 m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커다란 꽃시계는 각이한 색깔의 아름다운 화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비깥에는 꽃을 세밀로 그려낸 바탕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과 함께 꽃을 품은 꽃시계가 제작되었다. 20여 m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커다란 꽃시계는 각이한 색깔의 아름다운 화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은 테양절을 맞이할 때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헝양절 흥행렬 시기 함께 쌓은 전우들의 후대들에게 돌려주신 한없는 사랑과 응진에 대하여 감회 깊이 회고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 대국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선열들이 뛰어난 중조 친선을 키워준 역할에 영원히 경제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큰 절과 60개의 작은 절이 고르롭게 배열되어 있었다.

주제 96 (2007) 년 4월 6일부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만경대 고향질사진, 주체사상 탐사진 그리고 여러 제동 등을 짓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김일성 회전은 세 월이 흘러도 그 빛과 이름다움, 순결함을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품고 있다.

나이제리아 애누구 출판사는 경에 하는 김정일 동지의 저작 『김일성 회전』을 주제로 인류의 미마음에 피어난 불멸의 꽃이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보고르식 물원은 역사가 오랜 것으로 유명하지만 불멸의 꽃 김일성 흥화를 세상에 내놓은 것으로 하여 더욱 그 이름이 나오는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김일성 회전 시회장을 열게 된 일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전보적인 인민의 자주업무를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었으며 그길에서 혁신의 마음의 분출이었다.』

정그은 세계 자주화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공해주는 언론기관이다.

베르다가 워스위스에 위치 차로 간 것은 몇 해 전이었다. 물론 사상용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본 그였고 스위스 출장 또한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때 베르다가 받은 감동은 이전과는 달랐다.

워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시계가 유명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 나라에서 만드는 시계는 스위스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위스 시계에 그 나라 사람들의 땀과 냄새가 들어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워스위스에서 원형으로 된 회귀한 천연 꽃시계가 제작되었다. 20여 m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커다란 꽃시계는 각이한 색깔의 아름다운 화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비깥에는 꽃을 세밀로 그려낸 바탕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과 함께 꽃을 품은 꽃시계가 제작되었다. 20여 m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커다란 꽃시계는 각이한 색깔의 아름다운 화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은 테양절을 맞이할 때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헝양절 흥행렬 시기 함께 쌓은 전우들의 후대들에게 돌려주신 한없는 사랑과 응진에 대하여 감회 깊이 회고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 대국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선열들이 뛰어난 중조 친선을 키워준 역할에 영원히 경제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큰 절과 60개의 작은 절이 고르롭게 배열되어 있었다.

주제 96 (2007) 년 4월 6일부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만경대 고향질사진, 주체사상 탐사진 그리고 여러 제동 등을 짓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품고 있다.

김일성 회전은 세 월이 흘러도 그 빛과 이름다움, 순결함을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품고 있다.

나이제리아 애누구 출판사는 경에 하는 김정일 동지의 저작 『김일성 회전』을 주제로 인류의 미마음에 피어난 불멸의 꽃이다』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보고르식 물원은 역사가 오랜 것으로 유명하지만 불멸의 꽃 김일성 흥화를 세상에 내놓은 것으로 하여 더욱 그 이름이 나오는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김일성 회전 시회장을 열게 된 일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전보적인 인민의 자주업무를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었으며 그길에서 혁신의 마음의 분출이었다.』

정그은 세계 자주화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공해주는 언론기관이다.

베르다가 워스위스에 위치 차로 간 것은 몇 해 전이었다. 물론 사상용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본 그였고 스위스 출장 또한 처음이 아니었지만 그때 베르다가 받은 감동은 이전과는 달랐다.

워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시계가 유명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 나라에서 만드는 시계는 스위스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위스 시계에 그 나라 사람들의 땀과 냄새가 들어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워스위스에서 원형으로 된 회귀한 천연 꽃시계가 제작되었다. 20여 m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커다란 꽃시계는 각이한 색깔의 아름다운 화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비깥에는 꽃을 세밀로 그려낸 바탕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과 함께 꽃을 품은 꽃시계가 제작되었다. 20여 m의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이 커다란 꽃시계는 각이한 색깔의 아름다운 화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들은 테양절을 맞이할 때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헝양절 흥행렬 시기 함께 쌓은 전우들의 후대들에게 돌려주신 한없는 사랑과 응진에 대하여 감회 깊이 회고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 대국건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선열들이 뛰어난 중조 친선을 키워준 역할에 영원히 경제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큰 절과 60개의 작은 절이 고르롭게 배열되어 있었다.

주제 96 (2007) 년 4월 6일부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만경대 고향질사진, 주체사상 탐사진 그리고 여러 제동 등을 짓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품고 있다.

김일성 회전은 세 월이 흘러도 그 빛과 이름다움, 순결함을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품고 있다.

나이제리아 애누구 출판사는 경에 하는 김정일 동지의 저작 『김일성 회전』을 주제로 인류의 미마음에 피어난 불